고용노동부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월간 내일 NOVEMBER 2026 Vol.618

November 2026
Vol.618

11



월간 내일

배우 이준혁

Contents

일의 온도,

노동 속
사람을 읽다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51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의 저작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간 내일
웹진 바로보기

36.5도의 일상

삶의 현장에서 기록된 나의 일, 우리의 일



04
일의 온도
흔들리는 사람들 곁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08
일터의 열정지수
모두가 함께 고른 색, 공장의 안전 지도가 되다
CJ제일제당(주) 부산공장

14
MOEL 인사이트
안전한 일터, 존엄한 노동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18
시시콜콜 상담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걸까요?
고용24 직업심리검사 200% 활용법

내일의 체감온도

정책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변화



20
함께하는 MOEL
푸른 꿈, 세상 밖으로 껑충 뛰어나오다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알송달송' 팀

24
현장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개최

28
공감 1도
기관의 경계를 넘어 일자리 상생의 길을 열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32
글로벌 통신
일터에서 마음까지 보호받을 울타리
세계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법

34
MOEL 뉴스

쉼표의 온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쉼터



38
내일 인터뷰
'행운'보다 '행복', 일이 지켜내는 일상 예찬
배우 이준혁

42
내일의 일
탄소를 붙잡아 지구를 지키다
탄소포집저장연구원

44
두근두근 내일 여행
숲은 찬란하게, 길은 고요하게
경기도 광주에서 만나는 만추

50
셰프의 제철한끼
한 그릇에 피어난 가을
백 가지 꽃처럼 어우러지는 '백화반'

52
내일 툰
• 찬바람이 불면
• 책보다 화장실부터!



AI GENERATED

흔들리는 사람들 곁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최진영의 소설 <구의 증명>에는 두 청년이 있다. '담'은 마트 한구석에서 고기를 썰며 하루를 벌고, '구'는 부모가 남긴 빚을 성인이 된 몸으로 짊어지고 열일곱 살부터 공장 일을 이어 간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지만, 갚아도 줄지 않는 빚 앞에서 숨 돌릴 틈을 얻지 못한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기우'도 그 곁에 서 있다. 반지하 집에서 피자 상자를 접으며 생계를 꾸리던 기우는 우연히 시작한 과외 일이 사다리의 한 칸이 되기를 바란다. 일자리가 사다리여야 하는 세계에서, 그는 그 사다리를 잡아도 되는지 늘 조심스럽다.

드라마에 비친 청년의 모습은 더 현실적이다. <미생>의 '장그래'는 바둑에 청춘을 쏟았던 길을 접고, 고졸 검정고시 출신으로 종합상사에 계약직 인턴사원으로 들어와 하루하루를 버텨 낸다. 다음을 헤아리기 어려운 날들이고, 정규직 전환은 끝내 허락되지 않는다. <나의 아저씨>의 '이지안'은 여섯 살부터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며, 번 돈을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쓰고 닥치는 대로 일한다. 빚이 급한 그에게 회사 대표는 도청기 설치를 청하고, 생계가 눈앞에 놓인 사람에게는 거절할 여유조차 남아 있지 않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미안해요, 리키>의 '리키'는 택배회사에 취직했다고 기뻐하지만, 회사는 그를 '개인사업자'라 부른다. 그는 배달 밴 값을 스스로 마련하고 보수는 건당 받으며, 수신인이 집에 없는 일 하나에도 벌금을 문다.

이 주인공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열심히 일하지만, 노동자라는 자격을 온전히 건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4대보험, 노동조합 같은 우리의 노동보호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닿을 수 있다. 그사이 일의 모양은 계약직, 프리랜서, 자영업, 플랫폼으로 넓어졌지만 보호의 문은 예전 크기 그대로 남아 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에 따르면,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귀속납부자 기준으로 법의 보호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24년 기준 약 869만 명이고, 2014년의 약 400만 명에서 십 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도 612만 명에서 846만 명으로 늘었다. 그래서 흔들림은 세 지점에서 찾아온다.

다쳤을 때 기댈 보상이 없고, 일이 멈췄을 때 이어 줄 손이 없고, 부당하다고 느껴도 말을 건넬 창구가 없다. 이 흔들림은 개인의 몫이 아니다. 일의 모양이 달라진 속도를 안전망이 아직 따라잡지 못했을 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 안전망을 넓히려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산재보험은 보호의 범위가 넓어졌다.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없어져 여러 곳에 일을 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약 92만 5천 명이 새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 리키와 같이 배달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일하다 생긴 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고용보험도 문을 열었다. 2020년 12월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만큼 채워 갈 몫이 크다. 2024년 기준 가입자는 79만 9천 명으로 869만 명의 10%에 이르지 못한다.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 닿게 하는 일이 다음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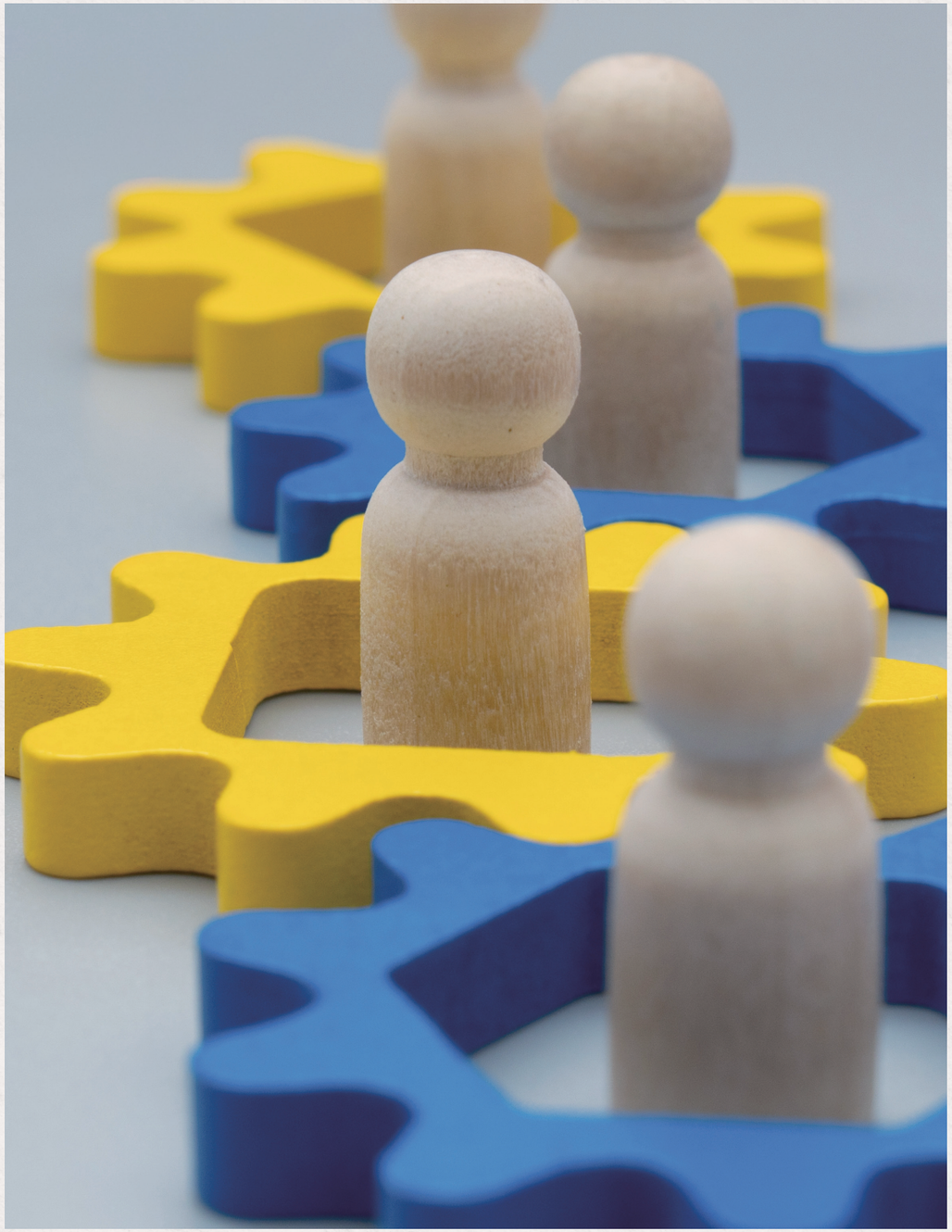
일터에서 목소리를 낼 통로도 생겨나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한다. 하청과 외주의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실제로 정하는 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 사회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6월 제114차 총회에서 "법률상 노동자성과 무관하게 플랫폼 종사자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세계 기준을 채택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종합법은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갈 일이다.

안전망은 거창한 제도가 아니다. 일하다 다치면 보상받고, 일이 끊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부당하다고 느끼면 말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매일의 일터에 깔려 있으면 된다. 최소한의 안전망은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 내는 그물이기 전에, 걱정 없이 다시 뛰게 하는 발판이다.

담이 고기를 썰면서도 내일을 그려 볼 수 있기를, 기우가 사다리를 놓쳐도 다시 손을 뻗을 수 있기를, 이지안이 도청기를 들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설 속 주인공들이 우리 사회에 건네는 바람은 크지 않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안전망 위에 서는 것. 그 바람에 맞춰 제도가 하나씩 마련되고, 일터에 단단히 자리 잡기를 바라본다.

글. 편집실



모두가 함께 고른 색, 공장의 안전 지도가 되다

CJ제일제당(주) 부산공장

safety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일만큼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다와 햇반으로 국내 식문화를 이끌어 온 CJ제일제당(주) 부산공장은 이 믿음을 색으로 풀어냈다. 식품업계 최초로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을 작업장에 들인 것이다.

글 차은서 **사진** 오충근



작업환경이 먼저 알리는 안전의 힘

CJ제일제당 부산공장은 1953년 부산 서면에서 국내 최초로 설탕 생산을 시작한 제일제당의 역사를 잇는 사업장이다. 약 2만 5천 평 부지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구성원 약 900명이 함께 일하며, 국내 식문화를 이끄는 동시에 수출 전초기지로 역할을 넓히고 있다. 부산공장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 구성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잠재 위험을 미리 찾아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 왔다.

부산공장에는 하루 평균 약 150대의 화물차가 드나들고 64대의 지게차가 오간다. 다양한 차량과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이동하는 만큼 물동량이 늘어날수록 이동 동선을 명확하게 나누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기존에는 안전표지판이나 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번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이하 CUD)[1] 도입은 단순히 공장에 색을 입히는 환경미화 활동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넘어, 작업환경이 먼저 위험을 알려주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장기태 공장장이 설명했다.

부산공장은 2025년 9월 KCC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CUD를 표준 매뉴얼로 만들어 적용했다. 부산공장은 이를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작업장에 적용했다.





색과 픽토그램으로 그린 안전 지도

아이디어는 고속도로에서 얻었다. 복잡한 분기점에서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직관적으로 알아보도록 돕는 색상 유도선의 원리를 산업현장에 옮겨 온 것이다. 부산공장과 KCC는 차량 이동 동선과 보행환경을 분석해 중앙교차로와 보행 유도선, 횡단보도, 비상대피로 등 주요 동선에 이동 주체별 색을 입혔다.

보행로에는 파란색 계열을 적용하고 바닥에 발자국 픽토그램을 그려 넣었다. 지게차 이동 구역에는 주황색 계열의 지게차 픽토그램을, 화물차 이동 구역에는 붉은색 계열의 유도선을 적용했다. 보행자와 지게차 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에는 '지게차 주의', '일단멈춤' 안내판을 세우고 바닥에 주의 인포그래픽을 더했다. 색상과 함께 픽토그램과 경고 패턴을 적용해 안전 정보의 전달력도 높였다.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공정안전관리(이하 PSM)[2] 대상 공정에는 축광도료 '루미세이프'로 피난·대피 경로를 표시했다. 평소 빛을 흡수했다가 어두운 환경에서 빛을 내는 도료로, 정전이나 화재, 침수 상황에서도 대피 방향을 쉽게 찾도록 돕는다. 일반 보행구역에는 미끄럼방지 조치를 더했다.

디자인 선정은 현장 근로자의 몫이었다. 부산공장은 안전디자인 개선안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노동자 의견을 수렴한 뒤 투표로 적용할 디자인을 정했다.

"안전시설은 단순히 보기 좋은 디자인보다 현장의 작업 특성에 적합하고,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자가 직접 선정한 디자인은 현장에 대한 공감대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안전환경 개선을 구성원 모두의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1.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 Color Universal Design): 색각 특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색을 설계하는 디자인 방식. 구별하기 쉬운 색 조합을 고르고, 색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양·무늬·글자 등을 함께 써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2.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화재·폭발·누출 같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 설계부터 운전, 정비, 비상 대응까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새로운 환경은 기존 노동자는 물론 신규 입사자와 외부 방문자, 외국인 근로자도 위험구역과 이동 경로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돕는다. 부산공장은 현장 운영 결과와 근로자 의견을 꾸준히 확인하며 개선 효과를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공장 담장을 넘어 번지는 안전문화

부산공장은 공간 디자인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더해 예방체계를 촘촘히 다지고 있다. AI 기반 위험 감지기술과 스마트 안전모를 도입했고, 1인 작업공정 스마트 안전모 시범운영, 냉장·냉동창고 출입자 스마트 에어백 착용, 드론 안전점검 시범운영 등 새로운 기술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CUD가 근로자의 안전한 행동을 유도하는 시각적 예방수단이라면, 스마트 안전기술은 현장의 위험을 보다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완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관리 역량도 꾸준히 키웠다. 2022년 PSM 이행상태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뒤 개선을 이어가 올해 7월 최고 등급인 P등급을 달성했다. 전문기관 컨설팅과 전문화 교육, 모의면담과 자체 점검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했고, 동남권 PSM 협의회 활동과 우수사업장 벤치마킹으로 다른 사업장의 사례를 운영에 반영했다. 정압기 교체와 내화도료 강화 등 설비 투자도 함께 추진했다.

안전문화는 공장 밖으로도 이어진다. 2024년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안전문화 확산 정책과 연계해 매년 햇반 20만 개 이상의 포장에 안전 메시지를 담고, 화재취약개소 지원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1년 문을 연 약 330㎡ 규모의 안전체험관에서는 지게차 충돌, 끼임 등 산업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2026년 9월 기준 누적 3,634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부산공장은 KCC디자인센터와 함께 CUD 디자인 요소를 표준화해 다른 제조사업장과 물류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안전디자인 매뉴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모든 구성원이 아침에 출근한 건강한 모습 그대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터, 안전이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업장, 그것이 CJ제일제당 부산공장이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안전한 일터의 모습입니다."

바닥에 그은 색 한 줄에서 시작된 변화는 부산공장의 현장과 구성원의 일상까지 바꾸는 중이다. 이제 이곳에는 누구나 위험을 먼저 알아보고 안전한 길을 스스로 고르는 일터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안전이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업장,
바닥에 그은 색 한 줄에서 시작된 변화는
현장과 구성원의 일상까지 바꾸는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안전한 일터, 존엄한 노동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

2026년 10월 27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률 조항 몇 개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일터의 주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존엄한 노동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한층 단단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글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선제적 안전 체계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위험 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현장 노동자의 주체적인 대응 권한을 강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명확하고 급박한 위험 상황'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대응체계를 '위험이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상황'까지 포괄하도록 개선했다.

우선 작업중지 요구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노동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특히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내 위험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등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위험요인을 완벽히 해소할 때까지 작업 재개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했다.

예방적 투자를 유도하는 합리적 책임 구조와 환경 변화 대응

개정된 법안은 반복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전액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되어 향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설비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기업이 안전관리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현장 여건 악화를 반영했다. 건설 현장에서 폭염이나 한파 등 극심한 기후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법률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 적정한 작업 여건을 보장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타 업종 및 도급인까지 확대 적용하여 안전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노·사·정 협력 및 행정 절차 합리화

산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 소통 기구인 '안전한일터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산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반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절차적 효율성을 기했다.

노동자 [Worker]	위험 상황 발생 시 작업중지 및 대피 권한 행사, 현장 모니터링 참여
사업주 [Employer]	안전보건 예산 투입, 기후변화 대응 등 작업 환경 개선
정부 [Government]	안전한일터위원회를 통한 정책 소통, 법제도 정비 및 행정적 지원
안전한 일터	노·사·정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산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 현장

안전이라는 튼튼한 다리 위에서 내일을 그리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 관리를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현장의 기본적 권리로 정립하고, 노·사·정 간 협력 체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은 노동자의 사고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다.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현장의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안의 취지에 맞춰 각 주체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산업 현장의 재해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기대효과 및 변화	시행 시기
노·사·정 협력 기구	고용노동부 내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노·사·전문가 20명 이내)	산재 예방 정책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 반영하는 상시 협력 체계 구축	2027. 1. 28.
작업중지 범위 확대	위험 우려 시 대피권 인정 및 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작업중지 요구권 명확화	노동자의 자율적 안전 확보권 보장 및 위험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	2027. 4. 28.
예방 중심 책무 강화	상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부과 (영업이익 5% 이내) 및 재원 산재예방에 투입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투자 확대 유도 및 예방 재원의 선순환 구조 형성	2027. 4. 28.
사고 반복 시 처벌 강화	동시 2명 이상 사망 등으로 3년간 영업정지 2회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취소 요청 가능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상습 위반 사업장 퇴출 근거 마련	2027. 4. 28.
참여 및 제도 합리화	산안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 개설	현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 활성화 및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 절감	2027. 1. 28.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 → 도급인·타 업종까지 확대	관리비 부정사용 예방	건설업 2027. 4. 28. 건설 외 2027. 10. 28.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 명문화	기후재난 시 공기 연장 근거 확보	2026. 10. 27.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압력용기 등 인증대상 기계의 인증 면제	수출기업 인증부담 완화	2026. 10. 27.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걸까요?

고용24 직업심리검사 200% 활용법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진로를 찾으려면 자신의 흥미와 적성,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고용24 직업심리검사'는 초등학생부터 중장년까지 생애 단계에 맞춘 24종의 검사로 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진단해 진로 고민을 구체화하고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도록 돕는 무료 서비스다.

글 편집실

직업심리검사 하러 가기

나에게 맞는 검사 찾기

초등학생(5~6학년)	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중학생	중학생 진로적성검사, 중학생 진로발달검사(커리어UP)
고등학생	고등학생 적성검사, 고등학생 진로발달검사(커리어UP)
청소년 누구나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청소년 직업가치관검사, 청소년 인성검사
대학생	대학생 진로준비도검사
성인 누구나	AI 직업선호도검사, 직업선호도검사(S형·L형),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성인용 직업가치관검사, 구직준비도검사
중장년(45세 이상)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50~70대	준고령자 직업선호도검사
국내 거주 이주민	이주민 취업준비도 검사

*청소년은 '청소년 비회원 심리검사 로그인'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결과표에 나온 전문 용어와 그래프를 혼자 분석하기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혼자 해석하기 어렵다면 고용24 '직업심리검사 결과 상담'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지필검사를 받고 싶거나 직접 만나 상담받고 싶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전문 직업상담원과 1:1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의 강점과 보완할 점, 구체적인 직무와의 연결점까지 짚어 줍니다.
(문의: ☎ 1350(유료))

Q 여러 가지 중 무엇부터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A 모든 검사가 무료이니 현재 상황과 목적에 맞춰 부담 없이 골라 보세요. 진로 분야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흥미로 알아보는 직업탐색(Job아드림)'으로 시작해 보세요. 나의 흥미 특성과 맞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AI 직업선호도검사'나 '직업선호도검사 S형'을 권합니다. 특히 AI 직업선호도검사는 응답에 따라 문항이 달라지고, 흥미 특성에 맞는 직업을 추천해 줍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구직준비도검사'로 구직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이직을 고민하거나 직업 선택의 기준을 살펴보고 싶다면 '직업가치관검사'로 일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인해 보세요.

Q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이 검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A 결과표의 역량 키워드와 가치관 항목은 자소서 문장의 좋은 재료가 됩니다. 예컨대 직업가치관검사에서 '타인에 대한 봉사'나 '자율성'이 높게 나왔다면, 실제 경험과 엮어 "저는 자율적인 환경에서 타인과 협력할 때 최선의 성과를 내는 인재입니다"처럼 근거 있는 자기 PR 문장으로 활용해 보세요.

Q 검사 결과에서 추천된 직업이 실제 제 희망 직업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심리검사는 흥미·적성검사에서 측정한 특성을 바탕으로 직업을 추천합니다. 그 결과는 진로를 정할 때 고려할 여러 요소 중 하나이니, 희망 직업이 검사 결과와 달라도 괜찮습니다. 검사에서 확인한 나의 강점과 특성이 희망 직업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Q 직업심리검사를 받으면 실업급여 구직활동(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나요?

A 고용24에서 성인용 직업심리검사를 마치고 '검사결과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고용센터에 내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전체 수급기간 내 1회 인정). 다만 인정 횟수에 제한이 있으니 자세한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세요. 짧은 시간에 성의 없이 응시하거나 같은 검사를 되풀이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분히 성실하게 응시해주세요.



사진 셔터 도용자 제보

푸른 꿈,
세상 밖으로 껑충 뛰어나오다

2026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 대상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알송달송' 팀

지난 9월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1]'에서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알송달송' 팀은 84개 참가팀 가운데 대상을 차지했다. 불편 한 조각이 씨앗이 되고, 거듭된 실험이 거름이 되어 결실로 익었다.

글 차유미 **사진** 오충근

알송달송, 상자 더미에서 궁금증이 쌓였다

출발점은 팀원 이주형 학생의 아버지가 일하는 택배 현장이다. 명절처럼 물량이 몰릴 때면 주형 학생과 나은우 학생이 아버지의 일손을 보탰다. 쉬지 않고 밀려오는 상자를 분류하고 나르는 동안 두 학생은 이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현장을 꾸려 가는 일이 얼마나 막막한지 몸으로 알게 됐다. 그 경험이 팀의 목표가 되어 다섯 명의 마음이 모였다.

"현장에서 직접 겪은 진짜 문제들을 학교에서 배운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기술로 직접 해결해보자!"

모인 이는 송희찬, 이주형, 나은우, 권정달, 이진 학생이다. 팀 이름에도 그 마음이 담겼는데, 처음에는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나알송달송'이라 불렀다가 "조금 길다"는 의견이 나와 프로젝트의 핵심인 '알찬 배송, 달달 배송'을 줄여 지금의 이름으로 다듬었다. 고등학생다운 위트가 묻은 이름이다.

직접 현장에서 물으며 문제를 찾다

대회에 나선 계기는 역시 궁금증이었다. 학생들은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실제 현업 전문가분들이 보기에도 가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택배 지점을 직접 찾아가 기사님들과 직원분들을 만났다. 대형 물류센터에는 자동화 시스템이 일부 있지만 기사님들이 일하는 지점과 작은 배송 현장에는 이런 기술이 닿지 않았고, 고충은 한곳으로 모였다. "누가, 어느 단계에서 훼손했는지 불분명해 생기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크다." 상자가 망가졌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

1.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대회. 기업이 산업현장의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훈련 과정에서 습득한 전공지식과 신기술을 활용해 기업과 함께 해결하는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네 번째로 열렸다.



가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단순한 배송 조회 대신 '인공지능 기반 파손 검증 및 책임 명확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미지 인식으로 택배 파손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기록하고 배송 순서까지 자동으로 추천하는 이 시스템은, 경험과 감에 기대던 배송 현장을 데이터로 관리해 보자는 시도였다.

일부러 상자를 찌그러뜨리다

인공지능이 파손을 알아보려면 먼저 배워야 한다. 팀은 로보플로(Roboflow)의 공개 데이터셋 'damaged-box-detection(파손된 상자 사진을 모아 둔 학습 자료)'으로 기본 모델을 학습시켰다. 그다음에는 직접 상자를 찌그러뜨려 가며 각도와 파손 유형을 바꿔 인공지능이 알아보는지 확인했다. 처음에는 멀쩡한 상자를 파손이라 하고 찌그러진 상자를 지나치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데이터셋을 다시 정리하고 테스트를 반복하며 한 가지를 배웠다.
"인공지능(AI)의 판단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사람이 직접 검증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가장 어려웠던 일은 파손 인식 모델과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앱을 한 줄로 잇는 작업이었다. 데이터가 꼬이고 속도가 느려질 때마다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교내 실습실에 남아 데이터 흐름을 하나씩 다시 그렸고, 그 사이에도 택배 기사님과 고객이 버튼 몇 번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만은 놓치지 않았다. 심사단은 택배 기사와 소비자의 실제 요구를 조사한 점, 기업 현장 문제와 훈련 기술을 연결한 점, 사용자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 간 과정을 높이 샀다.



실습실의 밤이 길러낸 개발자의 꿈

이 작업의 바탕에는 학교 수업이 있었다. 파이썬(Python), 자료구조, 인공지능 모델링, 자바(Java) 앱 개발 실습에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2]'의 실무 훈련과 전문가 멘토링(mentoring)이 더해지면서, 복잡한 알고리즘(algorithm)을 데이터베이스와 모바일 앱에 잇는 힘이 자랐다.
진로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화면에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는 데서 만족했지만, 이번에는 "기술로 사람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쾌감"을 맛보았고, '현장 밀착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자'라는 꿈을 키우게 됐다. 시작할 때는 "고등학생인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얻은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학생들은 이번 상을 발판 삼아 또 다른 공모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교내 실습실의 불은 당분간 꺼지지 않을 모양새다.
진유정 지도교사의 평가도 따뜻하다. "성실하고 열심히 해 온 학생들이 이런 성적으로 돌아온 게 참 보기 좋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끝까지 파고들어 해결하려는 집요함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후배들에게도 한마디 남겼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고, 여러분만의 멋진 가능성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명절이 돌아오면 상자는 다시 쌓인다. 파손 하나를 두고 눈치 보는 일도 여전하다. 그러나 그 상자 더미 곁에서 의문을 씨앗처럼 주워 간 학생들이 있고, 그 씨앗은 이미 한 그루의 나무로 서 있다. 다음 계절에는 그 나무 아래에서 또 다른 질문이 자라날 것이다.



시작할 때는 걱정이 앞섰지만 학생들이 얻은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2.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협업훈련 모델. 교육부 기준에 따라 신기술 분야로 교과를 개편한 직업계고 학과에 고용노동부가 체계적인 실무 훈련을 지원한다. 현재 76개교 95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개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서울고용노동청 청년ON라운지에서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를 개최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의 권리 보호를 주제로,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듣는 자리였다.

글 차유미 **사진** 김경수



제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먼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계약 형태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869만 명에 이르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이 20~30대라고 짚었다. 조사에 응한 청년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였고, 20대 초반 일부는 가입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잦은 과업 변경, 보수 지급 지연 같은 경험은 경력이 쌓일수록 늘었고,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분쟁조정 지원 체계를 원했다. 20대 초반 상당수가 다른 일 경험 없이 곧바로 프리랜서로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의 기준이 생기기 전에 계약과 협상을 혼자 익혀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10년 동안 요구해 온 플랫폼 프리랜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작됐다. 이력서에 적을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길이 처음 열린 셈이다. 김 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되면 일상에 필요한 권리도 하나씩 갖춰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수의 기준, 계약의 기본

이어 현장의 이야기가 쏟아졌다. 자유발언에서는 영상 편집 마케터, 방송·미디어 노동 상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그 실질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발명품입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라가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담 활동가, 성교육 강사, 문화예술교육가 겸 심리상담사,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우 등 청년 프리랜서들이 목소리를 더했다. 올해 직장을 나와 영상 편집을 시작한 마케터는 원본을 고르고 자막과 소리를 다듬는 시간까지 보수에 어떻게 담을지 고민했던 경험을 꺼냈다. 지인을 통해 계약서 없이 맡은 행사 상세 페이지 작업은 행사가 무산되며 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처음 일을 맡기는 사람도, 처음 일을 하는 사람도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바랐다. 한 해 100여 명의 방송 노동자를 상담하는 미디어 노동인권단체 활동가는 드라마부터 OTT, 숏폼까지 미디어 현장 곳곳에서 프리랜서가 일한다고 소개했다. 계약서 작성이 현장에 자리 잡도록 하는 장치,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을 살피는 근로감독 지침, 새로 생겨난 숏폼 장르에 대한 초기 관심을 제안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일감을 연결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조건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할지 함께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데 닿아 있었다.

일에 대한 애정, 그 곁에 필요한 울타리

2019년부터 활동해 온 성교육 강사는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꾸릴 수 있다는 점을 프리랜서의 매력으로 꼽으며 이 일이 적성에도 잘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일을 후배에게 자신 있게 권하려면 강사비 지급 기준과 기댈 창구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작을 병행하려 프리랜서를 택했다는 문화예술교육가 겸 심리상담사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소득 증빙의 숙제를 이야기했다. 사전 회의와 기획, 결과 보고서 작성처럼 계약서에 드러나지 않는 일까지 일한 시간으로 인정받기를 바랐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우는 예술인 상당수가 공공지원사업 안에서 일하는 만큼, 사업을 내는 쪽이 계약과 보상 기준부터 함께 살펴봐 주길 요청했다. 예술인 프리랜서 비율은 정부 조사로 약 65%지만 현장 체감은 80%를 넘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한곳으로 모였다. 좋아서 택한 일을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기본이 갖춰진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선언에서 의무로, 기본법이 여는 다음 장

김영훈 장관은 “어떤 제도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새로운 발명품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제도를 ‘발명품’에 비유했다.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를 인용하며, 기본법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나라가 의무를 지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라가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본법의 연내 제정과 이를 토대로 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노무제공자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아우르는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도 설계 중이다. 한편,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회보험료·모성보호·금융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가 “때로는 놀이터가 되고 때로는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명칭도 청년들과 함께 짓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헛된 날이 아니다’라는 것은 나라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기관의 경계를 넘어 일자리 상생의 길을 열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마흔 살에 다시 일을 찾아 나선 한 경력단절여성은 지금 어르신들 앞에서 디지털 교육 강사로 일한다. 고용센터의 상담과 새일센터의 교육, 지자체 일자리사업이 하나의 길로 이어진 덕분이다. 각 기관의 지원을 하나로 이은 것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가 꾸린 '인천서북부 일자리 상생 협의체'다. 지역협력과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일자리 협업체계를 구축해 2025년 고용어워즈 우수부서에 선정됐다.

글 차은서 **사진** 김경수

흩어진 고용서비스를 잇는 협의체의 출발

「인천서북부 일자리 상생 협의체」에는 지자체와 고용센터, 대학, 사업주단체, 여성·중장년 지원기관 등 15개 기관이 함께한다. 협의체가 출범한 2025년, 유관기관을 통한 알선취업 인원은 6,512명으로 전년보다 20.4% 늘었다. 185개 기업에 4억 300만 원의 지원금이 돌아갔고, 432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흩어져 있던 기관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낸 '인천서북부 일자리 상생 협의체'는 현장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그 무렵 지역의 일자리 협업 네트워크는 코로나19를 지나며 끊어져 있었고, 기관마다 고용서비스를 따로 제공하고 있었다.

지역의 사정도 녹록지 않았다. 인천북부지청이 관할하는 계양구, 부평구, 서해구, 검단구, 강화군에는 부평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10곳의 산업단지가 있다. 뿌리산업과 식품·전자제조업이 발달했고,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금속가공제품·전자부품 제조업 일자리도 몰려 있다. 문제는 일자리가 있어도 기업과 구직자가 좀처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위경오 팀장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지역협력과가 어떤 힘을 보탤 수 있을지 묻기 위해 인천서부고용센터와 인천북부고용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주로 지자체 일자리지원팀과 연계하는데, 사업을 하다 부딪히는 애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센터에서는 지역협력과가 자치단체와 일자리 유관기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 주길 바랐습니다."

이후 위 팀장은 두 센터의 내·외부 회의에 부지런히 얼굴을 내밀며 따로 움직이던 일자리 사업들을 이을 방법을 찾았다. 위 팀장이 내놓은 답은 인천북부(계양·부평)와 인천서부(서구·강화)를 하나로 묶는 협의체였다.





"협의체를 만들자는 의견을 냈을 때 지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셨어요. 과장님은 등불처럼 길잡이가 되어 주셨고요. 센터에 실무협의체가 미리 꾸려져 있었던 덕분에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협의체를 움직이는 소통의 방식

지역협력과는 관내 지자체를 차례로 찾아가는 협업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주단체를 방문해 애로사항부터 들었다. 2024년 7월에는 4개 구·군청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내일센터, 지역 사업주단체의 팀장급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공문으로 사전 설문을 보내 구성 희망 여부와 시기, 협의체 이름까지 물었다. 설문에 응한 12개 기관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25년 4월 8일, 대학을 포함한 14개 기관이 '인천서북부 일자리 상생 협의체'라는 이름 아래 처음 마주 앉았다. 지청장이 위원장을 맡은 본협의체는 반기마다 공동사업을 심의하고, 산하 실무협의체는 분기마다 모여 기관별 사업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청년START, 중고령자NEXT, 여성FLEX, 취약계층EXIT, 기업통합지원으로 구성된 5개 분과가 학령기부터 은퇴기까지의 고용서비스를 맡는다. 2026년 7월 서구에서 분리된 검단구가 합류하면서 지금은 15개 기관 3개 분과(청년, 중장년, 기업분과)가 함께한다.

협의체가 첫발을 떼자마자, 위 팀장은 새로운 과제와 마주했다. 실무협의체의 참여율이 생각보다 낮았던 것이다. 위 팀장은 대면 회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상적으로 정보를 나눌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실무자들이 자주 모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구직자를 서로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분과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고, 채팅방이 잘 운영되지 않은 기업 지원 분과는 전화나 대면으로 사업과 정보를 나눴습니다." 분과마다 맞는 방식을 찾아가며 협의체는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춰 갔다.



이금선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장

소통으로 함께 여는 내일

Q. 협의체가 함께 발굴한 공동사업이 있나요?

계양구와 함께 인천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장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 15명을 지원했고, 10월 말 12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로도 넓힐 수 있도록 참여기관과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Q. 협의체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당장은 협업이 필요한 안건을 구체화해 실제 사업으로 잇는 것입니다. 길게는 다섯 개 구·군의 서로 다른 산업구조와 고용 여건을 살려,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함께 풀 수 있는 공동사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내일을 만드는 협력의 길

협의체의 성과를 묻자 위 팀장은 한 사례자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육아로 오래 일을 쉬었던 마흔 살의 천모 씨다. 고용센터가 상담으로 강사라는 진로를 찾아 주자,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디지털 튜터 과정과 현직 강사 멘토링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용센터는 다시 강의 경험을 쌓을 자리를 마련했고, 지자체 일자리 상생사업은 그를 고령자 디지털 교육 강사로 세웠다. 상담과 교육, 현장 경험을 여러 기관이 이어 주면서 천 씨의 취업을 뒷받침한 것이다.

"막연한 계획만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생각을 구체화하고 행동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기관이 협업해 강의할 자리까지 마련해 준 데 무척 고마워하셨어요."

위 팀장은 이런 사례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내 일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는다면 유관기관 간 협업도 순리대로 이어질 겁니다."

협의체가 자리를 잡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달라졌다.

"협의체 출범 이후 협업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큰 힘이 됩니다. 협의체가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소통의 장을 계속 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기관 간 협력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인천북부지청 지역협력과. 이들이 닦아온 길을 따라, 오늘도 누군가는 취업의 문턱을 넘고 있다.



일터에서 마음까지 보호받을 울타리

세계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울타리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글 편집실 **출처** 노동법률, 국제노동기구(ILO)



스웨덴

세계 최초의 법령이 남긴 출발선

스웨덴은 1993년 세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령(AFS 1993:17)을 통과시키고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계기는 연구자 하인츠 레이만(Heinz Leymann)의 경고였다.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해마다 100~300명에 이른다는 주장은 인구가 많지 않은 이 나라에 큰 울림을 남겼다. 초기 법령은 정의를 세우고 사용자에게 예방·대응 의무를 맡기되 촘촘히 감독하지는 않는 기초적인 형태였다. 피해율은 자기보고 방식 기준 3.5% 수준으로 낮게 이어졌지만, 신고가 드물다 보니 관리자들이 대응 절차를 접할 기회조차 적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 원칙은 2015년 '조직적·사회적 작업환경 규정(AFS 2015:4)'으로 다듬어졌고, 2025년부터 새 규정 체계(AFS 2023:2)로 옮겨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

전문가에게 열쇠를 맡긴 구조

벨기에는 2002년 6월 11일 「직장 내 폭력·정신적 괴롭힘·성희롱 보호법」을 제정했다. 베르겐 그룹 출신 연구자가 입법에 참여한 만큼 노르웨이의 '방지조언사 제도'를 들여와 유형과 등급을 세분화했다. 괴롭힘 사건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최고 등급인 '심리사회적 방지조언사'뿐이다. 관련 분야 석사 학위에 1년 반의 전문 교육과 5년 경력을 갖춰야 하는 자격으로 사측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받는다. 이들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거나 직원에게 이들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면 위법이다. 행정기관도 신고가 들어오면 방지조언사를 배정한다. 신고 검토와 조사, 사측 조치 감시를 거쳐 조직문화 진단과 예방 계획 수립까지 맡는다. 2014년 개정으로 보호 대상은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아우르는 심리사회적 위험 전반으로 넓어졌다.

일본

'파와하라'에서 '카스하라'까지

일본은 2019년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을 고쳐 이른바 '파와하라 방지법'을 마련했다. 대기업은 2020년 6월, 중소기업은 2022년 4월부터 사내 방침과 상담 창구를 갖춰야 한다. 법은 우월적 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언동으로, 근로자의 취업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본다. 적정한 업무 지시와 지도는 여기서 제외된다. 정부 지침은 신체적 공격, 정신적 공격,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과대한 요구, 과소한 요구, 사생활 침해의 여섯 유형을 제시한다. 올해 10월 1일부터는 고객의 폭언, 이른바 '카스하라' 대응까지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주의 의무가 되었다. 계산대 너머 손님의 고성도 이제 회사가 함께 막아야 할 몫이다. 전화와 SNS로 이어지는 폭언도 여기에 포함된다.

프랑스

법전에 새긴 정의와 형벌

프랑스는 2002년 1월 17일 「사회현대화법」으로 '정신적 괴롭힘(harcèlement moral)'을 노동법과 형법에 함께 들였다. 현행 노동법전 L1152-1조는 "어떤 근로자도 권리와 존엄을 해치거나 건강을 훼손하고,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만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반복적 정신적 괴롭힘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L1152-4조는 사용자에게 괴롭힘을 막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형법 222-33-2조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 벌금 3만 유로까지 물릴 수 있게 했다. 피해자는 사용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괴롭힘을 증언한 동료 역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예방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처벌은 가해자의 몫으로 분명히 나눠 맡긴 셈이다.

캐나다

북미의 문을 연 퀘벡

캐나다는 북미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다. 퀘벡주는 2004년 6월 1일 「근로기준법」에 '심리적 괴롭힘' 금지 조항을 넣었는데, 차별과 무관한 괴롭힘까지 금지한 북미 첫 사례로 꼽힌다. 연방정부는 2021년 1월 1일 「캐나다 노동법」 개정(Bill C-65)과 「직장 내 괴롭힘·폭력 예방 규정」을 함께 시행했다. 은행·통신·항공 같은 연방 규제 사업장은 예방 방침과 교육을 갖추고, 위험 요인 평가를 3년마다 다시 점검해야 한다. 재택근무지와 출장지, 회사가 연 행사도 '일하는 곳'으로 본다. 고객 등 외부인이나 가정폭력이 일터로 번지는 경우도 위험 요인으로 평가한다. 퇴직자도 퇴사 후 3개월 안에는 재직 중 겪은 괴롭힘을 사업주에게 알릴 수 있다. 사무실 문을 나선 뒤에도 보호가 한동안 이어지는 셈이다.

1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19~30일 자율점검을 거쳐 11월 2~13일 위험 사업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2분기까지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32명으로 전년 동기(16명)보다 2배 증가했다. 점검에서는 불꽃·불티 비산방지, 가스농도 측정·환기, 정전기 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 등을 확인한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불시점검에 나서며,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 미이행 시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2

리스타트 잡페어 참여 세대별 취업·재도전 지원

고용노동부는 10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4회 2026 리스타트 잡페어'에 참여해 청년, 경력보유여성, 중장년층의 취업과 경력 재도전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기관 75곳이 참여해 114개 부스를 운영하고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는 행사 참여를 통해 다양한 구직자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 지원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를 통해 세대와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고용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3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9월 고용동향과 일자리 정책을 논의했다. 9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1.3만 명 늘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청년 고용과 건설업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지속됐다. 정부는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훈련 기회 제공 등을 담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근로여건 개선 등으로 고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 공표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공표*했다. 경영책임자 등 39명 중 1명은 징역형 실형,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기존 공표 사업장 81곳을 분석한 결과,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 위반이 75곳(92.6%)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의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엄정 수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5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추가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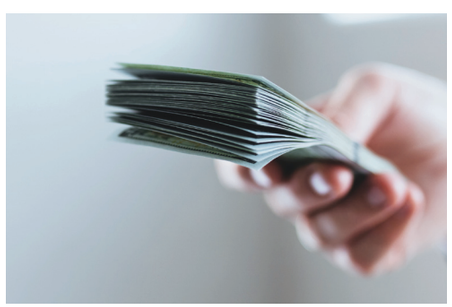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23년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겼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개한 51건은 누적 조회수 5만 회를 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판결 확정 사건뿐 아니라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의 유사재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6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원까지 확대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상황에서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변제금 강제징수, 장기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체불 노동자 보호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7

충청권 성장산업 내일이음 프로젝트 출범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 충북도청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과 함께 '충청권 성장산업 내일이음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 바이오·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총 40억 원을 투입해 인재 양성부터 취업·지역 정착까지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광역 간 기업·인재 연계, 공동 취업지원, 프로젝트형 인턴십, 이직·이주 노동자 정착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해 충청권을 하나의 일자리 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8

중장년 재취업 우수사례 시상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9월 30일 서울에서 제21회 중장년고용 강조주간 기념식을 열고 중장년 5명과 기업 12곳을 시상했다. 수상자들은 반도체 직무교육과 중장년 일경험 등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기업들은 현장 중심 교육과 원·하청 상생형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AI 기반 경력설계, 중장년 특화훈련, 일경험 및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용센터 통합서비스와 중소·중견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중장년의 재취업과 경력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운’보다 ‘행복’, 일이 지켜내는 일상 예찬

배우 이준혁

네 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다. 그리고 세 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다. 프랑스의 장수 나폴레옹이 전투 중 네 잎 클로버를 발견하고 고개를 숙인 순간 총탄을 피했다는 일화 때문에 네 잎 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그 ‘행운’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천으로 널린 ‘행복’을 외면하는지도 모른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출근하는 직장인을 연기한 배우 이준혁에게 행복을 물었다.

글 하경헌 경향신문 기자 **사진** 에이스팩토리, 티빙

로또 1등 당첨되면 출근하시겠습니까

최근 배우 이준혁이 출연한 티빙의 드라마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는 일상에 솟아난 ‘행운’ 그리고 그 때문에 미처 몰랐던 ‘행복’을 찾는 이야기다. 이준혁은 극 중 홍성인터내셔널의 팀장 공은태 역을 맡았다. 성실한 태도로 팀장까지 달았지만, 타성이 찾아오고 이와 함께 기막힌 행운인 로또 1등 당첨도 찾아온다.

모두가 평생의 행운으로 여기는 로또 1등을 거머쥔 사나이. 하지만 그는 사직서 대신 로또 1등 종이를 품고 출근을 택한다. ‘살기 위해 일을 하는’ 상황이 ‘일하기 위해 사는’ 상황이 된 것이다. 누구나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또 한 번쯤은 꿈꿔보는 상황. 이준혁이 이 공은태를 궁금해하게 된 것도 이러한 아이러니한 설정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은 배역 각각의 역할이 많았어요. 이번 작품은 처음으로 주인공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평범한 인물이었기에 더 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사람답지 않은 인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이 편하게 다가왔네요.”

당첨액 5,000원, 이준혁도 로또를 한다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고 그도 로또를 사본 적이 있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물론 그는 평소의 반듯한 이미지답게 별로 행운에 기대는 타입은 아니었다. 하지만 제목도 ‘로또’가 들어가는지라 캐릭터를 준비하며 매주 로또를 사보려 했다. 당첨액은 5,000원이 최고였다. 심지어 정성껏 찍은 회차는 그마저도 외면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로또처럼 우연에 기대는 게 아닌가 해요. 물론 제게는 그 정도의 행운이 온 적은 없었고 다음의 희망을 품는 정도였죠. 어쨌든 힘이 들어도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이런 지점이 공은태와 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작품에서 평범한 인물을 하면서, 다른 때보다 친구들에게 ‘내 자신의 일이 멋져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평범함 속의 비범함, 힘을 빼고 접근한 작품의 힘. 이런 아이러니한 명제들이 작품의 인기를 끌어올렸다.

행운이라는 시선, 20년 동안 감춰진 일상

그는 갑작스러운 행운보다는 평소의 행복에서 얻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대중의 시선은 그가 가진 행운에 대해 집중했다. 하나는 평범한 직장인 역할을 해야 하는 배우치고는 조각 같은 외모, 다른 하나는 로또 당첨의 행운을 애써 가라앉히려고 하는 극의 설정이었다.

"지금까지 한 작품이 보여준 이미지와 팀워크가 제 모습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20년 동안 그렇게 뭐가 없었습니다. 시작부터 얼굴로 떼돈을 벌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웃음) 은태보다 더 고생했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외모는 시대의 유행인 것 같아요. 외모에 대한 칭찬도 감사하지만, 유행이 지나면 나중에는 별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살이 많이 붙는 체질이기에 남들보다는 적게 먹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 식단도 설명했다. 단백질 가루 한 번, 빵 한 조각,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채소 등을 섞어 먹는다. 모두의 최애인 라면도 끊었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다.

"로또 당첨이라는 설정도 그렇습니다. 배우에 빗대자면 특정 작품의 흥행이 배우생활 전반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작품이 잘됐다고, 그 작품으로 평생을 먹고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작품이 흥행을 한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듯이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2007년 <드라마시티>로 데뷔한 그는 터프가이와 악역을 오가며 긴 무명에 가까운 시간을 지났다. 2017년 <비밀의 숲>의 검사 서동재로 새 길이 열렸고, <나의 완벽한 비서>를 거쳐 올해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천만 관객을 만났다. 노력이 성과로 돌아오는 순간도 있었다.

"제 경력이 물리적으로는 꽤 긴 시간입니다. 그때 집에 가면 또 영화를 봤어요. 지금까지 몇천 편을 본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거의 20년의 세월을 일하고 영화를 본 것이 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촬영현장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가 나기도 하고요. 결국 더 잘하고 싶은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로또를 매주 사듯 행운을 기다리는 태도는 삶의 활력이 된다. 그렇지만 기다림 속에서 생기는 만족감은 결과가 생기지 않으면 허망할 뿐이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이를 채우는 행위는 내면의 행복을 채운다. 애초부터 이준혁은 행운을 기다리지 않았다. 일상의 행복을 채워나갈 뿐이었다. 그런 맥락으로 그에게 로또로 대표되는 행운의 의미도 다르지 않았다.

"행운에는 고통도 따라요. 어떤 역할을 할 때 제가 행운이 있더라도 그만큼의 실력이 없을 때도 있고, 반대로 함께하는 누군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있죠. 저는 행운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걸 '이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정도로만 생각하려 합니다. 게임을 잘하시는 페이커 씨도, 몇천억을 벌었다는 배우 톰 크루즈도 결국 도전을 계속하잖아요."

<월간 내일>은 땀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잠깐 숨을 고르는 자리다. 행운을 곁눈질하면서도 행복을 놓지 않는 이들이 이 페이지에 모인다. 이준혁도 그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독자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 기쁩니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드라마 마지막 회, 공은태는 동료 팀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뭘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라고 요. 배우라는 직업도 고난이 많지만 결국 멋져 보이게 되죠. 직장 생활도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보여준 작품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시는 일이 사회에 기여하고 굉장히 멋진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운은 오다 말다 해도,
출근길은 매일 우리 몫입니다.
매일 행복하세요."**





탄소를 붙잡아 지구를 지키다

Carbon Capture and Storage Researcher

탄소포집저장 연구원



공장 굴뚝 위로 흰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다.
이 기체를 붙잡아 땅속 깊이 되돌려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질문에 답하는 기술이 탄소포집저장(CCS)이고, 그 길을 설계하는 사람이 탄소포집저장연구원이다.

글 송송이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리포트, 노던라이츠 **일러스트** AI GENERATED

굴뚝에서 지층까지, 이산화탄소의 여정

탄소포집저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안전하게 운반해 적절한 지층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탄소포집저장연구원이다. 연구원이 다루는 일은 크게 포집, 운반, 저장의 세 단계로 나뉜다. 시멘트처럼 원료인 석회석이 열에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산업은 연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배출을 모두 줄일 수 없기에, 이 기술이 특히 주목받는다. 먼저 발전소나 시멘트 공장의 배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 골라낸다. 이산화탄소와 잘 결합하는 액체에 흡수시키거나, 고체 표면에 달라붙게 하거나, 특정 기체만 통과시키는 막을 쓰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연구원은 이 과정에 드는 에너지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모은 이산화탄소는 압축해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으로 옮긴 뒤, 지하 800m보다 깊은 지층에 주입한다. 이 깊이에서는 압력이 높아 이산화탄소가 액체처럼 빽빽해져 좁은 공간에 많이 담긴다. 물론 아무 곳에나 넣을 수는 없다. 알갱이 사이에 빈틈이 많은 사암층이 저장 공간이 되고, 그 위를 치밀한 암석층이 뚜껑처럼 덮고 있어야 한다. 주입한 뒤에도 지진파로 땅속을 촬영하듯 살피고, 압력을 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퍼질지 예측한다. 화학공학자는 분리 공정을, 지질학자는 저장 지층을, 환경공학자는 주변 생태계를 맡는다. 여러 분야가 한 팀이 되어야 완성되는 기술이다.

북해 바닷속에서 쌓인 30년의 기록

노르웨이 슬레이프너(Sleipner) 사업은 이 기술의 교과서로 꼽힌다. 1996년부터 천연가스에서 분리한 이산화탄소를 북해 해저 아래 약 800~1,000m 지층에 넣어 왔고, 누적 저장량은 2,000만 톤을 넘어섰다. 30년 동안 이어진 지진파 관측 자료는 지하 저장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귀한 근거가 되었다.

또 다른 사례인 노르웨이의 노던라이츠(Northern Lights)는 여러 산업 시설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선박으로 운반해 해저 지층에 저장하는 기반 시설이다. 2025년 8월 노르웨이 시멘트 공장에서 온 첫 이산화탄소가 해저 약 2,600m 지층에 주입되었다.

다만 탄소포집저장은 에너지와 비용이 필요하고, 저장 부지의 적합성과 장기적인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는 기술이다. 연구원들은 효율과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핀다.

과학적 호기심을 기후 해결의 열쇠로

우리나라도 2025년 2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만큼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탄소포집저장연구원을 꿈꾼다면 화학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지질학, 재료공학 등을 공부해 연구개발로 나아갈 수도 있고, 포집 설비를 운영하는 엔지니어, 저장소를 관측하는 모니터링 기술자, 자료를 해석하는 데이터 분석가로 일할 수도 있다. 안전관리와 정책, 탄소 감축량 검증도 같은 생태계에 속한다. 대학 연구실이나 관련 기관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이산화탄소 포집 효율을 비교하거나 지하 지층의 특성을 분석하는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다.

숲은 찬란하게, 길은 고요하게
경기도 광주에서 만나는 만추

광주



곱게 물든 숲에서 고즈넉한 성곽길까지. 경기도 광주의 만추는 자연의 화려함과 역사의 깊이를 함께 품는다.
화담숲의 오색 단풍을 만끽하고 남한산성 성곽길을 거닐며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아 보자.
가을의 빛깔 속에서 여유를 되찾고, 탁 트인 성곽길에서 삶을 넉넉하게 바라보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글 김주희 사진 오충근

단풍 따라, 가을 한가운데로

붉고 노랗고, 때로는 은은한 초록빛이 감도는 숲. 화담숲은 저마다 다른 가을의 색을 천천히 발견하기 좋은 여행지다.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숲에는 화려하게 물든 나무들이 어우러져 깊고 풍성한 가을의 색채를 완성한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든 햇살은 잎마다 다른 빛깔을 드러내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흔들리는 나뭇잎은 숲에 잔잔한 생동감을 더한다. 강렬한 색채로 시선을 사로잡으면서도 숲 전체에는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흐른다. 화려함과 고요함이 공존하는 미묘한 대비가 매력적이다. 세심한 손길과 정교한 정원 설계가 빚어낸 이곳만의 풍경이다.

가장 화려한 계절을 만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보고, 마음에 드는 장면 앞에 오래 머무는 것. 때로는 고개를 들어 하늘과 맞닿은 산자락을 바라보고, 때로는 시선을 낮춰 발치에 내려앉은 낙엽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계절은 다채로운 표정을 드러낸다. 산책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숲을 즐기고 싶다면 모노레일에 몸을 실어보자. 숲의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며 나무 사이로 펼쳐지는 단풍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나무와 풀잎이 속삭이는 숲의 다른 얼굴

화담숲의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분위기를 품은 테마원에서 드러난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숲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도 자연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는지 실감하게 된다. 이끼가 부드럽게 바닥을 덮은 정원에는 촉촉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고, 자작나무가 늘어선 길에서는 하얀 나무줄기와 주변의 단풍이 대비를 이루며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화려한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작은 풀잎과 바위, 나무의 질감이



곤지암 화담숲 작은 정원

사람의 손으로 가꾼 단풍이 저마다
다른 빛으로 물든다
그 사이를 천천히 걷다 보면
가을은 어느새 깊어져 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공간도 있다. 분재원에서는 자연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완성된 분재에는 작은 크기 안에 나무가 지나온 시간이 담겨 있다. 굽이진 줄기와 사방으로 뻗은 가지, 단단하게 자리 잡은 뿌리를 바라보면 자연의 생명력과 이를 가꾸어 온 사람의 정성이 함께 느껴진다.
화담숲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소리로 자연을 느끼는 감각적인 경험도 가능하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고 풀잎이 나지막이 속삭이는 숲.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감각을 깨워볼 것. 화담숲의 여정은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화담채'에서 한층 특별해진다. 미디어아트와 감각적인 전시 공간을 둘러보다 보면 자연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가을볕 아래 조선의 한 페이지, 남한산성행궁

화담숲에서 자연이 빚어낸 가을을 만났다면, 남한산성에서는 역사가 깃든 풍경을 만나보자. 남한산성 안쪽에 자리한 남한산성행궁은 조선시대 임금이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 머물던 곳으로, 유사시에는 궁궐을 대신하는 역할도 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피난해 47일간 머물렀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행궁 안으로 들어서면 처마 끝으로 펼쳐진 하늘과 건물 사이사이에 햇살이 스며든 풍경을 만날 수 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건물의 비례와 구조, 주변 지형과의 조화에서 전통 건축 특유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임금의 침전인 내행전과 정무를 보던 외행전 등 각 건물의 쓰임을 살펴보면, 공간마다 담긴 의미와 당시의 생활상도 한층 선명하게 다가온다.
특히 내행전에서는 조선 왕실 건축의 격식과 세심한 미감을 엿볼 수 있다. 건물은 담장 안쪽에 있어 독립적인 공간감을 이루며, 기둥 상부에는 새의 날개를 닮은 부재를 두 겹으로 포갠 이익공 형식이 적용됐다. 팔작지붕의 추녀마루 위에는 왕실 건축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잡상이 줄지어 놓여 있다. 이처럼 건축물 곳곳에 담긴 세부 장식을 살펴보면 조선 왕실 건축의 특징은 물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전통의 흔적까지 한층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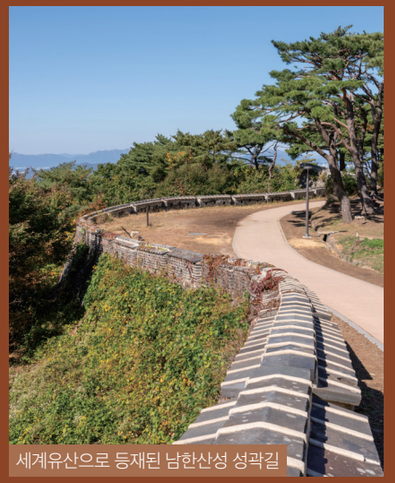

남한산성의 군 지휘소 겸 관측 누각 '수어장대'


남한산성행궁

성곽길 위에서 마음을 세우는 걸음, 남한산성 성곽길

행궁이 조선의 역사를 건축으로 들려주는 공간이라면, 성곽길은 그 역사를 온몸으로 감각하는 길이다. 굽이진 성벽 너머로 펼쳐지는 산자락과 탁 트인 전망, 호젓한 숲길을 따라 걸으며 성벽이 품은 시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한 걸음씩 옮기며 주변 풍경을 찬찬히 바라보다 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 흐트러졌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고, 내면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된다. 자연 지형을 활용해 성을 쌓은 선조들의 지혜를 돌아 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내는 단단함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다.
성곽길을 따라 걸으면 청량산 정상부에 자리한 수어장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조선시대 성안팎을 살피고 군사를 지휘하던 곳이다. 단정한 누각 주변으로 울창한 숲이 펼쳐지고, 시선을 멀리 두면 산자락 너머로 현대적인 도심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오랜 역사를 품은 누각과 빼곡하게 들어선 도시의 건물들을 함께 바라보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과거와 현재가 한자리에 놓인 듯한 순간, 역사와 오늘날의 일상이 묘한 대비를 이루며 색다른 감흥을 전한다.
경기도 광주의 가을은 저마다 다른 풍경으로 기억된다. 나무 사이를 채우는 다채로운 빛깔로, 오래된 건축물에 내려앉은 햇살로, 걷다가 문득 마주친 탁 트인 전망으로 남는다. 화담숲의 생생한 가을빛과 남한산성의 고즈넉한 풍경처럼 서로 다른 아름다움이 한 계절 안에 어우러지는 순간, 가을은 눈으로 보는 계절을 넘어 마음에 남는 계절이 된다.

오랜 세월을 버텨 온
돌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시야가 탁 트이며 가을
풍경이 펼쳐지고,
돌 틈마다 옛 시간이
고요히 배어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 성곽길

한 그릇에 피어난 가을

백 가지 꽃처럼 어우러지는 '백화반'



가을이 깊어지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유난히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생각난다. 화려한 음식도 좋지만, 갓 지은 밥에서 피어 오르는 구수한 김과 그 위에 소복이 올려진 갖가지 나물들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푸근해진다.

글과 레시피 김희은 셰프 **일러스트** 냉무

비빔밥에는 꽃 같은 이름도 있다. 밥 위에 재료가 꽃처럼 피어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화반(花飯), 백 가지 꽃이 어우러진 듯 풍성하다는 백화반(百花飯)이다. 서로 다른 빛깔과 향, 식감이 한 그릇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다가도 비벼지는 순간 전혀 새로운 맛이 된다. 나는 이 이름을 참 좋아한다.

백화반에는 오색 나물 대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의 정취를 담는다. 따뜻하게 지은 흰쌀밥 위에 식감이 매력적인 말린 묵, 들깨가루에 고소하게 볶은 무나물, 쌉싸름한 더덕생채, 담백한 숙주나물과 곱게 채 썬 밤을 올린다. 가을 향을 머금은 송이버섯채와 감칠맛을 더할 반건조 생선까지 곁들이면 한층 풍성해진다. 비슷한 색이어도 들여다보면 표정이 다르다. 특히 무나물은 담백한 재료들 사이에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이어준다. 색을 덜어내니 향과 식감이 오히려 또렷하다. 순백의 한복을 입은 듯한 이 그릇에는 백간장과 채수, 청양고추를 더한 양념장으로 끝맛을 개운하게 맺는다.

비빔밥만큼 너그러운 음식도 드물다. 꼭 들어가야 할 재료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 하나가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재료들이 조금씩 제 맛을 내어줄 때 가장 맛있는 한 그릇이 된다. 셰프로서 수많은 재료를 다루다 보면 좋은 요리가 귀한 재료나 복잡한 과정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익숙한 재료도 어떻게 손질하고 어떤 맛과 잇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이 된다. 그래서 먼저 각각의 맛을 살려주는 일이 중요하다. 백화반은 내가 좋아하는 요리 방식과 닮았다.

마지막 순간의 재미도 있다. 가지런히 담아놓고 결국 모두 비벼 버린다는 것이 조금 우습지만, 나는 그 순간이 가장 좋다. 각자의 맛이 밥알 사이사이에 스며들며 비로소 하나의 음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는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하나의 풍경을 이룬다. 계절이 바뀌면 담기는 재료가 달라지고, 함께 먹는 사람이 달라지면 추억도 달라진다. 올가을에는 밥을 넉넉히 짓고, 가장 맛있는 재료를 하나씩 꺼내 백화반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글과 레시피를 보낸 김희은 셰프는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소울'을 이끄는 오너 셰프로, 일상적인 식재료와 장 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섬세하게 풀어냈다.

백화반

계량 1 큰술 = 15g, 1 작은술 = 5g, 1 컵 = 250mL

재료

- 잘 지은 흰밥
- **주재료** 말린 올방개묵, 무나물, 숙주나물, 굴비, 더덕채, 밤채, 참송이버섯채
- **백간장 양념** 채수 5큰술, 백간장 1큰술, 간 배 1큰술, 들기름 1큰술

이렇게 만들어요!

1. (솥밥) 철원 오대쌀을 이용해 고슬고슬하게 밥을 잘 짓는다.
2. 말린 올방개묵은 채 썰어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한다.
3. 무는 얇게 채 썰어 들기름에 살짝 볶다가 채수를 부어가며 잘 익히고, 다진 마늘 소량, 들깨가루, 소금으로 간을 한다.
4. 숙주나물은 깨끗하게 손질한 후 끓는 물에 삶았다가 물기를 제거하고 소금과 참기름으로 가볍게 간을 한다.
5. 굴비나 서대와 같은 동해안의 말린 생선은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 둔다.
6. 더덕은 얇게 채 썰어 소금, 참기름으로 가볍게 간을 한다.
7. 생밤은 곱게 채 썰고, 참송이버섯은 실처럼 가느다랗게 손으로 얇게 찢어 준비한다.
8. (플레이팅) 중앙에 잘 지은 오대쌀밥을 담고 주재료의 찬들을 올리고, 가운데 곱게 찢어 둔 참송이버섯채를 소복하게 올린 후 양념장을 곁들인다.

찬바람이 불면

글. 그림 할리오니(@HALI.ONI)

1



코트 깃을 여미게 하는 바람이 차가운 계절,
으슬으슬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2



저는 그럴 때 먼저 쌍화차를 한 잔 마시고

3



개운하게 샤워를 한 후,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며
2분 정도 목덜미 부분을 따스한 바람으로 쐬어줍니다.

4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잘 먹고 잘 자기>에 집중합니다.

5



여러분들의 환절기 건강관리 꿀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책보다 화장실부터!

1



이상하게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배가 아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2



1985년 일본의 어느 잡지에 한 여성이
'나는 서점에 가면 꼭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다'라는
글을 투고해 많은 독자들이 공감했다고 합니다.

3



글이 소개된 이후 이 현상을
'아오키 마리코 현상'이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4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5



저도 종종 경험한 현상이 수십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겪은 현상이라 생각하니
참 신비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독자 후기

「월간 내일」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듭니다.
매호 「월간 내일」을 읽고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일의 온도]



'나'의 목소리가 '우리'의 권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함께 지켜야 할 권리로 이어지는지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직장에서는 관계가 나빠질까 봐 참는 경우가 많지요. 일터의 문제를 개인의 몫으로만 두지 않고, 서로 귀 기울이며 함께 해결하는 문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안신현 독자님

[일터의 열정지수]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일하는 방식을 점검해 업무 효율을 높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금요일 오후를 자신만의 시간으로 쓰며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최충환 독자님

[공감 1도]



안산과 시흥에서 이주노동자와 사업주를 연결하고 기숙사 환경까지 개선하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닌, 땀 흘리는 동료로 바라보는 시선이 깊고 따뜻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 윤혜영 독자님

「월간 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❶ 「월간 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❷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❸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알립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독자님은 개인정보 보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독이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구독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신규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내일」과 함께하는 QUIZ

「월간 내일」 2026년 11월호를 읽고 독자 퀴즈에 응시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가지는 핵심적인 취지 및 제도적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장 노동자의 주체적 대응 권한을 강화하여 위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토대 마련
② 모든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 대신 영업이익 5%의 과징금만 단독 부과
③ 건설 현장의 무리한 공기 단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공사 기간 단축
④ 모든 산업 현장에서 기업의 수출 절차를 전면 면제하여 행정적 편의 극대화

HINT. 개정안은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작업중지 요구권을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현장의 주체적인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14~17p 참고)

산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설치되며,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산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소통 기구의 명칭은 무엇인가?

① 노동안전협의회 ② 산업재해예방회의 ③ 중대재해대응본부 ④ 안전한일터위원회

HINT. 노·사·정 소통 기구로 고용노동부에 설치되어 산재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현장 정책 심의·의결 역할을 맡습니다.(14~17p 참고)

참여방법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❶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❷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6년 11월 19일(목)까지
※ 당첨자에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10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김○글(9095)	이○후(1865)	최○희(2950)
장○욱(6801)	유○봉(6588)	유○재(0621)
이○한(9317)	김○미(3440)	이○순(0194)

「월간 내일」 독자 만족도 조사

「월간 내일」이 더 가치 있고 유익한 매거진으로
거듭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더 알차고 유익한 「월간 내일」을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설문기간 2026년 11월 2일(월)~11월 20일(금)
※ 당첨자 발표 2026년 12월 1일(화)

설문조사 바로 가기